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설문원**

1. 머리말
2.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참여의 의미
 - 1) 참여의 유형
 - 2) 참여의 방식
 - 3) 참여형 아카이브
3.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별 사례 분석
 - 1) 수집기관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 2)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 3) 분석 종합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실행 적합성 평가: 맥락 요소를 중심으로」(공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2010 ;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2010 ;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 연구』 23, 2010.

[국문초록]

이 논문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서 참여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특징과 편익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조직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역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우리의 조건에서는 우선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발굴가능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직 참여형의 경우, 수집기관의 소장물이 중심이 되고 다수의 수집기관들이 참여하여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다수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분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들 중에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의 OAC(Online Archives California)와 Calisphere, 캐나다의 MemoryBC, 영국의 People's Collection Wales를, 공동체 기반의 아카이브 사례로는 Connecting Histories, CAW(Community Archives Wales),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Norfolk Community Archives Network(NORCAN)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다수의 수집기관이나 공동체 소장기록을 서비스하는 아카이브 포털의 성격을 가진다.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으로는 △분산소장 및 통합 활용, △수집기관 및 이용자의 참여, △맥락의 제공과 기록의 의미 있는 재현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조건을 중심으로 각 사례 아카이브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유형에 따라 어떤 측면에 강점과 취약점

이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환경에서 참여형 로컬리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추진주체 및 방식, △수집기관 및 공동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생산맥락의 보존과 재맥락화, △평가 선별,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참여형 아카이브, 로컬리티 기록화,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지방기록, 도큐멘테이션 전략, 집단기억

1. 머리말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작업이다.¹⁾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의 로컬리티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로컬리티는 지역 정체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체성은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볼 때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성패는 지역 내부 집단과 개인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에는 이미 지역 내 아카이브, 도서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가 담긴 기록을 선별·수집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웹 환경에서의 기록화에는 더욱 다양해지고 적극적인 참여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 흩어져

1)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6, 207~230쪽.

있는 기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아카이브 2.0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기관 간 협력은 물론 집단과 개인의 참여를 포함한 전략으로 재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주목해야 할 양상은 기록생산주체들의 참여이다. 지역과 지역민의 기억을 기록으로 포착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은 기억의 담지자이자 기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에서 이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자의 시각에서 기록을 수집, 축적,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내부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선별하고 기록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기록을 통한 공동체의 정체성 함양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이들의 역사를 온전히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 공공기록이 이들의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니 박물관, 기록관과 같은 공적 기관에서 지역사회의 각 공동체나 개인의 기억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참여의 관점은 아카이브 2.0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이용자’로서 기록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³⁾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서 참여의 의미와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을 짚어 보고, 구미에서 로컬리티와 관련하여 구축된 아카이브 사례들을 통해

2) Bachowski, DonnaM “Orlando Memory: Capturing Community Memories”, *Florida Libraries*, Fall 2009, 52(2), PP. 8-9.

3) 김유승,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2010. 12, 31~52쪽.

참여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참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별 특징과 편익은 무엇이며 참여형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사례의 의미와 한계를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관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구축되는 사례들에 주목하였다. 개인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역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우선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발굴가능한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사례들은 △수집기관의 소장물이 중심이 되고 다수의 수집기관들이 참여하여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다수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아카이브는 모두 다수의 수집기관이나 공동체 소장기록을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카이브 포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도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디지털 향토문화대전' 등과 같은 공식 사이트가 존재하나 참여형 아카이브로 보기는 어려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 공동체는 “로컬리티나 문화, 신념, 배경, 공유하는 정체성이나 관심사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규정하는 집단”이며,⁴⁾ 공동체의 유형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동체, 신념이나 문화, 경험, 관심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양자가 혼합된 형태의 공동체가 있다. 지역에는 이 모든 유형의 공동체가 모두 존재하며 따라서 로컬리티 기록화에서도 모든 유형의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

-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 : 영어사용 국가들 간에도 정

4) Flinn, Andrew,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October 2007, pp. 151~176 ; 설문원, 앞의 글에서 재인용.

의에 차이가 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특징은 “원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민자 집단이나 사회 주변부 공동체, 호주에서는 원주민 공동체나 성적 소수자 공동체의 아카이브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이고 문화적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⁵⁾

• 수집기관(collecting institutions)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등의 기관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호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⁶⁾ 이들 기관들은 기록유산기관(documentation heritage Institutions),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s) 등으로도 통칭되나 주요 임무에 자료의 수집이 포함되며, 오래된 자료뿐만 아니라 최신의 진행형 자료도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집기관’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공동체나 단체, 학회 등도 경우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지만 수집이 핵심 임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집기관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 참여형 아카이브 :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수집기관이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았다. 상세한 특징은 2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도 광의는 개념을 적용하여 단지 ‘장기보존 기능을 갖춘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넓게 한정하였다. 또한 기록 원문 전체를 디지털로 제공하지는 않아도 일부 기록원문과 컬렉션 기술 등의 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포함하였다.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제공되는 디지털 원문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Mary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2010, pp. 59-60.

6) 호주의 수집기관 단체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Collections Council of Australia’이 있으며, 수집기관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http://www.collectionscouncil.com.au/home.aspx>] 참조.

2.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참여의 의미

1) 참여의 유형

로컬리티 기록의 수집과 생산을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주체의 기억과 역사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Cox가 제안하고 실행했던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은 지역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집·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확인하고,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집기관들이 이러한 기록을 협력하여 수집·생산하는 방법론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기관 간 협력은 로컬리티 기록화에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인터넷은 개인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주요 주체인 지역 공동체의 기록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협력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이고 참여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따라서 협력은 기관과 기관, 기관과 공동체 간에, 참여는 주로 기관 및 공동체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이렇게 소장기관들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형 기록화, 기록의 생산 주체로서의 개인 및 공동체가 직접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하는 참여형 기록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이나 공동체의 협력도 기록화의 관점에서 보면 참여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로컬리티 기록화는 '조직 참여형 기록화'와 '개인

7) 포털 다음 국어사전.

참여형 기록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참여형 기록화에는 △수집기관 간 협력과 참여, △수집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과 참여 방식이, 개인 참여형 기록화에는 △소장기관 활동에 개인의 참여,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에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와 각 유형별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참여 유형과 사례

유형		참여 주체	아카이브 사례
조직 참여형	제1유형	수집기관 ↔ 수집기관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캘리포니아 OAC -캐나다 MemoryBC -영국 People's Collection Wales
	제2유형	공동체 아카이브 ↔ 공동체아카이브 ↔ 수집기관	[공동체 기반의 아카이브] -영국 Connecting Histories -영국 CAW
개인 참여형	제3유형	수집기관 ↔ 개인	-미국 Virtual Georgia
	제4유형	공동체아카이브 ↔ 개인	-영국 Moving Here

첫 번째 유형은 지역 내의 기록 소장기관들이 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례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수집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영국에서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호교류에 던지는 의미”에 주목하여 이들 아카이브를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⁸⁾ 세 번째는 아카이브

8) Andrew Flinn, Mary Stevens, Elizabeth Shepherd,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Archival Science*

2.0 기술 등을 이용하여 수집기관의 다양한 기록관리 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참여의 폭이나 깊이에 있어서 매우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때 참여하는 개인은 이용자임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록의 생산과 해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2) 참여의 방식

(1) 제1유형 : 수집기관 간 협력

미국과 영국 등에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수집기관들의 협력은 기록의 분산 보존과 통합검색이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아카이브들이 주목받을 만하며, 사라져가는 도시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도시의 기억 프로젝트(urban memory projects)들도 기관 협력 및 개인 참여가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기록화전략이 지역 내 수집기관들 간의 계획적인 수집 분담에 치중하였다면,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화 작업의 체계적 분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Manzuch는 지역 내 수집기관들이 자료의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을 위해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정부가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상업적 파트너가 지역의 기록을 디지털화하도록 재정 지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집기관들이 지속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⁹⁾ 한편 중국의 Wu Shushi는 지방사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⁰⁾

9(1-2), 2009, pp. 71~86.

9) Zinaida Manzuch, "Collaborative networks of memory institutions in digitisation initiatives", *The Electronic Library* 29(3), 2011, pp. 320~343.

그러나 수집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의 기록을 디지털화 하고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로컬리티 기록화의 목적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현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집기관 간 협력 모형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 등 지역사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기록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주로 남겨진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겨지지 않았거나 자신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2) 제2유형 : 수집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

영국에서는 지난 30~40년간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류 유산기관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했던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아카이브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주로 “지역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체 컬렉션의 보관자 및 생산자들은 주류기관의 아키비스트들을 불신하여, 자신들의 컬렉션을 직접 소유하고 물리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기록에 대한 통제나 전시 형식의 결정 등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정체성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집기관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동체 아카이브의 체계적 보존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

10) Wu Shushi, “Cooperation on local history and the concept of network building between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in China”, *IFLA Journal* 32(4), 2006, pp. 356-361.

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¹⁾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기록관리 및 이용자연구 국제센터(ICARUS)에서는 2008~2009년에 “공동체 아카이브와 정체성: 공동체 유산의 유지와 기록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화 기술지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영국의 주류 아카이브와 독립적인 공동체 아카이브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식의 연대를 조사하였다.¹²⁾ 협력방식은 양 분야의 지속적 관계 개발에 기초하는 ‘파트너십 모형’과 구체적 산출물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협력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LGBT(성적 소수자단체), 이민 공동체, 흑인예술 공동체 등이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런던시립아카이브(London Metropolitan Archives), 런던 박물관(Museum of London) 등의 수집기관들과 협력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¹³⁾ 보관, 수집, 큐레이션과 배포, 자문과 교육, 전문컨설팅 등 5개영역에서의 협력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과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즉 기록을 수집기관에 ‘양도(handing over)’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handing on)’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11) Andrew Flinn, Mary Stevens, Elizabeth Shepherd, 앞의 글.

12) Mary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2010, pp. 59~76.

13) 보관을 수집기관에 위탁하되 접근권한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결정하거나, 기술이나 분류작업에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되 수집기관의 장기보존 기능을 활용하는 협력방식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위의 글.

(3) 제3, 4유형 : 수집기관 및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에 개인 참여

아카이브 2.0의 패러다임은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 구현을 지향한다.¹⁴⁾ 이러한 아카이브 환경에서 이용자는 기록의 생산, 선별, 조직, 해석, 활용 등 다양한 기록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아카이브는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기록관리의 어떤 부분도 중립적이지 않으며¹⁵⁾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NA)이 최근 추진한 “Living the Poor Life” 프로젝트에는 지방사학자나 족보학자 등 전국 200여 명의 자원자들이 참여하여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아카이브의 19세기 기록을 연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¹⁶⁾ 즉, 참여형 콘텐츠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립보존기록청(NARA)은 Citizen Archivist Dashboard 사이트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태깅, 전사(Transcribe), 위키 문서 편집, 기록 업로드 및 공유, 1940년대 센서스 색인, 기록 콘텐츠 개발 등 각종 경진 대회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있다.¹⁷⁾

로컬리티 기록화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는 기록 이용자로서의 참여와 기록 생산자이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이용자는 물론 향토 사학자,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이거나 해당 문서와 관련 있는 집단이 참여할 수 있고 이용자층에 따라 참여의 깊이

14) Duff, Wendy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3), 2002, pp. 263-285 ; 김유승, 앞의 글, 42쪽에서 재인용.

15)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 1, 2001, pp. 3-24 ; 설문원,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 연구』 23, 2010에서 재인용.

16) [<http://www.nationalarchives.gov.uk/news/483.html>]

17)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

가 각각 다를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물론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영국의 'Moving Here'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영국의 이민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뿌리 및 이민 정착기와 관련된 기록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리며, 이러한 기록과 스토리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카이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집단기억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¹⁸⁾ 이 사이트는 Heritage Lottery Fund, TNA, 여러 박물관 단체의 지원을 받아 개발·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기억을 사진기록으로 남기려는 프로젝트 사례로는 'Vanishing Georgia'와 'Virtual Georgia' 프로젝트가 있는데, 'Vanishing Georgia' 사업은 조지아 기록관(Georgia Archives)의 아키비스트들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조지아의 역사 사진들을 보존하기 위해 수집한 사진 기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현재 아마추어 사진에서 전문 사진가 사진에 이르기까지 1만 8천 장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제는 가족, 직장생활, 거리 장면, 건축물, 농업, 학교, 시민 활동, 조지아 역사의 중요 인물과 사건, 경관 등 매우 다양하다.¹⁹⁾ 'Virtual Georgia'는 'Vanishing Georgia'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아키비스트뿐 아니라 이용자가 촬영했거나 소장한 사진기록을 조지아 기록관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 하여 사진기록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정해진 템플릿에 따라 작성한 메타데이터와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면 조지아 기록관의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별된 사진기록만을 컬렉션에 포함시키고 이를 '버추얼 조지아'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²⁰⁾

18) [<http://www.movinghere.org.uk/>] ;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에서 재인용.

19) [<http://dlg.galileo.usg.edu/vanga/>]

20) 김정현, 「철도역 사진기록화를 위한 영역설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2011. 10, 125~174쪽.

〈표 2〉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별로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주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편익이 곧 각 주체가 협력하거나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다.

〈표 2〉 참여 유형별 편익

유형 \ 편익	편익수혜자	편익
제1유형	수집기관	△소장 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용자층 확대, △통합검색으로 인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디지털화 예산의 지원 가능성 제고
제2유형	수집기관	△소장자료의 균형 및 다양성 제고, △이용자층 확대, △공기록 및 출판물 중심 서비스의 제약 극복
	공동체	△공동체 역사와 기록의 사회적 표출, △전문적인 보존기술 및 보존공간의 지원, △기록 조직, 전시, 교육 등의 업무지원 혜택
제3유형	수집기관	△제한된 내부인력의 보완, △집단지성 활용
	이용자	△개인적 요구충족, △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제4유형	공동체	△제한된 내부인력 보완, △시민아키비스트의 양성
	공동체구성원	△공동체 소속감과 정체성 강화

3) 참여형 아카이브

(1)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징

로컬리티 관점에서는 수집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아카이브, 이용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아카이브는 모두 참여형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 로컬리티 아카이브가 “집단과 개인의 기억이 만나는 곳,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이 만나서 지역의 전체상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지역민들이 능동적으로 집단기억을 형성하

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²¹⁾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광의의 참여형 아카이브 개념을 적용한다 하여도 본질적인 특징과 조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Isto Huvila는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징을 분산 관리(decentralised curation), 철저한 이용자 지향성(radical user orientation), 광범위한 맥락화(contextualisation)로 보았다.²²⁾ 즉, 참여형 아카이브는 특정 주제나 지역의 기록이 흩어져 소장되고 있는 환경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이며, 이때 이용자가 기록의 해석과 기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아진 기록들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드러나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Isto Huvila는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참여형 아카이브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쟁으로 사라진 카야니 성(Kajaani Castle)의 기록을 위해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이 성은 17세기 초에 지어져 군대 주둔지이자 주거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1716년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되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원래 기록은 핀란드 및 다른 나라의 많은 아카이브와 컬렉션으로 분산 소장되어 있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러한 컬렉션을 재결합하고, 흩어진 자료들을 웹을 통해 단일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 성과 관련된 문서, 사진, 지도, 계획도면, 그리고 성 자체의 내부 공간별 설명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기록의 기술적, 내용적 분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실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되었으며, 이러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모형은 핀란드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²³⁾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록들

21)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앞의 글, 228쪽.

22)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s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 2008. pp. 15~36.

23) Isto Huvila, 앞의 글.

을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주체들과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카이브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은 ‘시민 아키비스트’이다. 로컬리티 기록화에는 이용자나 전문가와 같이 내부관리자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참여는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성격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 “자기 공동체를 기록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시민아키비스트’는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Shilton과 Srinivasan은 “소외된 공동체가 기록의 관리와 보존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도구를 확장함으로써 아키비스트들은 로컬 지식을 보존할 수 있고, 대표성 있고(representative) 권력분산적인(empowered)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⁴⁾

(2) 풍부한 맥락 제공과 공동체 참여 프로세스

로컬리티 기록화에서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기록의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Shilton과 Srinivasan은 지금까지 주류의 수집기관들이 구축한 것은 “공동체의 아카이브”라기보다는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였다고 표현한다. 특히 아키비스트들이 “타자”의 정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불완전하고 탈맥락화된 재현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한다. 가령, 에스키모인들의 유물이 박물관 전시물로 유입되어 큐레이터가 이를 해석하는(interpret) 순간 문화적 지식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입, 전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와 원래 장소에서 오브제가 가지고 있던 풍부한 생명력에 대한 이해는 격감되는데, 원격지 컬렉션으로 옮길 때 내러티브와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한 내러티브와 ‘두꺼운 기술’은 기록과 오브제를 둘러싼 로컬 지식

24)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Spring, 2007), pp. 87~101.

구조에 내포되어 있고, 사회를 표상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고자 하는 아키비스트라면 이러한 지식 아키텍처와 맥락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평가, 정리, 기술 업무를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프로세스로 재설계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의 ‘맥락’을 공동체의 시각에서 재현”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주변부 공동체들의 강력한 내러티브를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키비스트들은 대표적 컬렉션이라는 오랜 논쟁 주제이며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²⁵⁾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록의 평가에 참여한 경우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문화 아카이브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다. UC 어바인의 동남아시아 아카이브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공동체 컬렉션 평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바 있다. 아키비스트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 동남아시아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을 평가에 적용하였다. UCLA와 UC 산타 바바라의 멕시코 연구 아카이브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멕시코운동 기간 중의 학생과 학자들의 요구에 의해 구축되었는데, 공동체 활동가가 중요하게 평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들은 다문화 아카이브에 참여 모형을 적용한 초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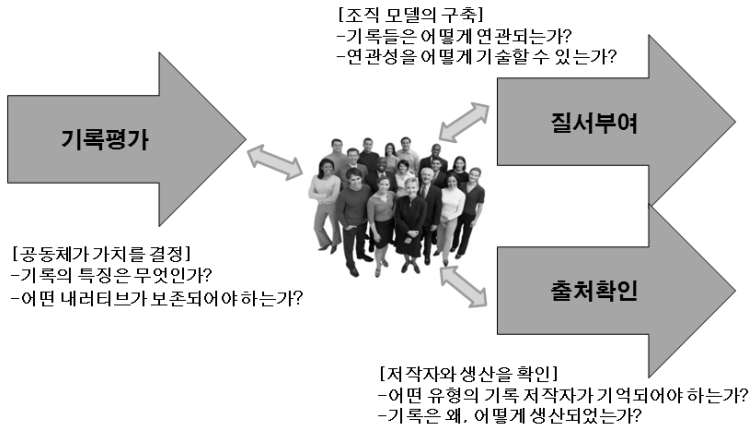
Shilton과 Srinivasan이 제안한 참여형 아카이빙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에서는 평가, 정리, 기술 단계에서 각각 공동체가 개입하도록 한다. 이들은 LA의 남아시아 이주 공동체를 위한 상호소통 허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는 남아시아 웹(The South Asian Web)을 참여형으로 설계함으로써 참여형 기록 평가, 정리,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남아시아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연령대, 출신지, 경제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을 찾아 이들이 공동체 온

25)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앞의 글.

26) 위의 글.

톨로지를 개발하게 하고, 이러한 온톨로지에 따라 설계된 시스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올린 기록과 콘텐츠를 정리하고 기술하도록 기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을 실행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림 1〉 Shilton과 Srinivasan의 참여형 아카이빙 모형



이 논문에서는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으로 △기록의 분산보관과 통합적 활용을 지원하며, △사회·역사적, 혹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 집합체에 대한 맥락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기록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설계된 아카이브로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서구에서 개발된 다양한 로컬리티 아카이브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였다.

3.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별 사례 분석

사례로는 제1유형의 참여방식을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수집기관의 소장물이 중심이 되고 다수의 수집기관들이 참여하여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과 제2유형의 참여방식을 통해 구축되는 아카이브(다수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즉, 기관이나 집단별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개별 수집기관이나 공동체 아카이브에 개별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례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1) 수집기관 기반의 참여형 아카이브

(1) 캘리포니아 온라인아카이브 OAC²⁷⁾

Online Archive of California(이하 OAC)는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가 소장한 기록은 물론 캘리포니아 전역의 150여 개의 도서관, 특수 컬렉션 소장기관,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차 자료(공예품, 필사본, 개인문서, 역사 사진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일반에게 제공하는 가상 아카이브(virtual archives)이다. OAC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 CDL)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UC Berkeley가 EAD를 개발하면서 탄생하였으며 2008~2009년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설계되었다.

OAC는 2만 개에 가까운 온라인 컬렉션 가이드(집합적 검색도구)를 제공한다. 가이드에는 컬렉션 내의 기록 건물과 이들의 수집 및 생산방식, 컬렉션의 소장위치, 기관 연혁 및 개인이력 등의 상세한 기술 정보

27) [<http://www.oac.cdlib.org/>] 참조(2011. 8. 1 접근).

가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를 훑어보면서 자료 소장처를 확인하거나 선택한 기록을 디지털로 열람할 수도 있다. OAC를 통해 17만 건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와 문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OAC의 컬렉션 가이드는 자료의 특성, 협력기관의 기술업무 특성에 따라 기록 계층의 수가 다양하며, 모든 가이드가 인벤토리 형식의 검색 도구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OAC는 현재 MARC와 EAD라는 2개의 포맷을 채택하고 있다. EAD 레코드인 경우는 상세 검색 및 목차 제공이 가능하지만 MARC 레코드인 경우 불가능하다. 컬렉션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MARC 포맷도 채택하고 있다.

OAC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이 참고정보서비스 등 제공 기록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컬렉션 가이드에 소장기관의 연락처를 넣어 이용자가 컬렉션이나 기록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기록 이미지나 텍스트를 출판, 복제하고자 할 경우 소장기관의 사서나 아키비스트, 큐레이터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OAC는 컬렉션 가이드에 기술된 자료들을 소장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지만, 분산 소장된 컬렉션들에 대한 통합적 검색을 제공하고, 각 컬렉션을 기술해주며, 원문을 연계해줌으로써 캘리포니아 지역 기록에 대한 안내자 및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캐나다 MemoryBC²⁸⁾

MemoryBC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컬렉션의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사이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약 200개 보존소들이 소장한 만여 개의 기록컬렉션/фон(fonds)을 검색할 수 있다. 컬렉션/폰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하며, 일부 컬렉션의 경우 온

28) [<http://www.memorybc.ca/>] 참조(2012. 3. 30 접근).

라인 인벤토리 및 디지털 원문이 제공된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소장기관의 웹사이트로 링크함으로써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기록에 대한 이용 안내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컬렉션/종의 제목, 생산기관이나 개인의 이름, 보존소(Repositories), 주제(Subjects), 장소(Places)별 브라우징 검색이 가능하며, 기관이나 개인, 보존소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아카이브 네트워크 서비스(BC Archival Network Service)의 일환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카이브 협회(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AABC)가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아카이브 개발 프로그램과 UBC의 Irving K. Barber Learning Centre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AABC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아키비스트 협회와 아카이브 협의회가 통합되어 1990년 설립된 기구로서 이 지역의 아키비스트 및 아카이브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 협의회는 BC의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 촉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 목록을 지원하는 지역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며, 국가 아카이브 개발 프로그램(National Archival Development Program) 등의 재원을 할당하고, 회원들 간의 연계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미국 캘리포니아의 Calisphere²⁹⁾

Calisphere는 지역의 역사기록을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 콘텐츠로 개발한 사례이다. 이 사이트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사진, 문서, 신문, 정치 풍자만화, 예술작품, 일기, 전사된 구술사, 광고물, 문화 박물관 등 15만 건 이상의 디지털화된 기록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 디지털 도서관(CDL)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이며, UC 캠퍼스의 도서

29) [http://www.calisphere.universityofcalifornia.edu/institutions.html](2011. 8. 30 접근).

관과 박물관 등 캘리포니아 전역 110여 개의 다양한 수집기관들로부터 유산기관들로부터 디지털화된 일차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다양한 일차정보원들을 수집하여 K-12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역사 및 사회과학, 문학, 시각예술 분야 과목의 ‘캘리포니아 콘텐츠 표준(California Content Standards)’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일차자료 컬렉션들을 설계하였다.

- 테마별 컬렉션(Themed Collections) : 시기별로 주요 테마를 잡아³⁰⁾ 설명하고 관련된 일차정보원을 제시하며, 이를 학습과 연계

- 캘리포니아 문화 :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토박이 미국인의 4개 그룹에 대한 이미지 자료

- 일본계 미국인의 이주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 :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 수용의 역사를 보여주는 개인문서 및 공문서, 구술 채록, 예술작품

- 알파벳순 브라우징 : 캘리포니아 교육표준(콘텐츠 표준)에서 선별된 용어들이 알파벳순으로 열거되고 각 용어별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교사들을 위해 일차자료는 물론 교수 및 학습에 관련 정보 및 링크 제공, 학습 계획 샘플, 일차 자료 분석 시트 등을 제공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학의 수백 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웹 사이트도 안내하고 있다.

Calisphere는 협력기관들이 소장한 수천의 사진, 문서, 예술작품, 기타 역사자료의 디지털원문을 제공한다. 자료는 협력기관이 소장하고 있지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캘리포니

30) 예를 들어 1950~70년대의 주제는 사회개혁(Social Reform), 시민운동(The Civil Rights Movement), 자유언론운동(The Free Speech Movement), Watts(미국 남부 흑인지구. 1965년 흑인폭동이 일어난 곳),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 일상생활, 성적 소수자 가두행진 등이다.

아 주내 도서관, 아카이브, 역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의 규정에 따라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협력기관들이 컬렉션을 디지털화하는 데에 지원을 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이 지원업무를 관장한다.

(4) 웨일즈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 People’s Collection Wales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웨일즈의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의 문화유산기관들이 소장한 자료를 온라인 환경에서 수집, 해석, 배포, 토론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웨일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2개 국어(영어와 웨일즈어)로 제공되는 이 사이트에서는 유산기관의 디지털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나 지방사학회가 자신들의 디지털 컬렉션을 만들고, 관련 있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웨일즈국립도서관, 웨일즈국립박물관, 웨일즈 고대 및 역사 유적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Ancient and Historical Monuments of Wales) 등 웨일즈의 문화유산기관들이 주관하며 문화유산기관들의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인 “CyMAL: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Wales”은 지방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들이 People’s Collection Wales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때 재정지원을 해준다. People’s Collection Wales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화필름, 비디오 및 오디오 클립, 지도,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이다.³¹⁾ 교육용(교사/학생별, 학년별) 콘텐츠, 전시 콘텐츠, 기록컬렉션, 이용자가 분류한 그룹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제공한다. 이 웹사이트는 GPS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웨일즈의 풍경을 여행하면서 유물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31) 2012. 3. 30 현재 3,696건, 896개 컬렉션, 278개의 이야기가 올라 있고, 2,440명이 협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People's Collection Wales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융합서비스의 사례이며 콘텐츠 생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기술 등 수많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있다.³²⁾

2)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사업은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아카이브 포털로는 Connecting Histories와 CAW를 들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 자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홍보하고 각 아카이브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이트로서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 그룹(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이하 CAHG) 등의 사이트도 함께 분석하였다.

(1)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 CAHG, CCAN, NORCAN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유산 그룹(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이하 CAHG)' 사이트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에 대한 디렉토리의 역할을 한다. CAHG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범국가적 비영리 단체로서³³⁾ 공동체 아카이브 지원을 위하여 세미나 주최,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위한 목록 지침 제공, 공모 활동, 이메일 뉴스레터 배포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조직들을 연결

32) Lucy A. Tedd, "People's Collection Wales: Online access to the heritage of Wales from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Program: 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45(3), pp. 333~345.

33) CAHG는 'Community Archive Development Group'의 후신이며, 영국 국립 아카이브 협회(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협력기구[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txt_0_thissite.aspx] 참조(2011. 5. 5 접근).

시켜주고 정보 및 아이디어 소통을 위한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 아울러 웹 사이트를 통해 영국의 수많은 공동체 아카이브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영국에는 3천 개 이상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다고 추산되는데,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하던 지방사 그룹들이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고, 80~90년대에는 산업 침체로 위기에 처한 많은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가계사(family history) 연구의 일환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CAHG에서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체 아카이브로 간주한다. 첫째, 기록컬렉션의 주제가 사람 공동체인 경우이다. 같은 장소에 사는 집단인 경우가 많지만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관심 공동체’인 경우도 있다. 둘째, 기록컬렉션의 생산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경우이다. 전문 아키비스트와 함께 기록화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에 자원봉사자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HG는 자발적 참여형 사이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의의 아카이브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아카이브를 가진 많은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조건으로는 첫째, 특정 유형의 기록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컬렉션은 물리적이거나 디지털일 수 있고 양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진, 문서, 구술사 등 일차 자료를 포함(일차 사료에 대한 기사나 에세이 등의 이차 사료만을 가진 경우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포털 사이트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특수한 공동체나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즉,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범국가적 컬렉션(예: 전쟁기념 기록물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웨

일즈의 여성 아카이브, 사라진 공동체³⁴⁾ 웹사이트 등), 흑인·소수·민속집단, 특별 관심사별 공동체는 교통, 성적 소수자(LGBT), 간호 등과 같이 주제를 다시 세분화하여 아카이브를 안내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 파악한 공동체 아카이브 중 약 64%가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교구(parish)나 마을(village)단위가 많았으며, 나머지는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구성된 공동체들이었다.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한명에서 15명까지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는 2011년 현재 약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사진기록, 문서, 소리기록, 구술기록 등을 수집하고, 80% 이상의 아카이브가 전자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45%는 비공식 조직이며, 30%는 다른 조직의 부설조직, 25% 미만이 자선단체였다. 전체 공동체 아카이브의 50%가 헤리티지 로터리 기금(Heritage Lottery Fund, HLF)지원을 받고 있고 25%는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영국의 이밖에도 노퍽(Norfolk)과 캠브리지셔(Cambridgeshire)³⁵⁾와 같은 지방정부도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캠브리지셔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 CCAN)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캠브리지 지역의 범 카운티 공동체 아카이브를 목표로 구축되었다. CCAN에서 디지털로 연계된 공동체들은 자료를 업로드하고 많은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역사와 실무 경험을 교환한다. CCAN에는 현재 48개의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가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은 최

34) 사라진 공동체(Abandoned Communities)는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된 지역을 의미. [<http://www.abandonedcommunities.co.uk/index.html>] 참조(2011. 5. 5 접근).

35) 노퍽과 캠브리지셔 모두 영국 잉글랜드 동부에 있는 주. 캠브리지셔의 중심 도시는 케임브리지.

근 1세기 동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80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도 14개에 달한다. CCAN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Heritage Lottery Fund(HLF)의 재정지원을 받아 50개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 그룹에 대한 통합검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공동체 집단들은 캠브리지셔의 도서관, 아카이브, 정보서비스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CCAN에 업로드 하고 있다. 캠브리지와 헌팅턴의 카운티 기록관들이 이들 공동체 아카이브를 초청하여 다양한 기록을 탐구하고 지역사 학습 자료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CCAN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HLF의 지원이 2008년에 끝났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캠브리지셔 지역사 협회(Cambridgeshire Association of Local History) 소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³⁶⁾

노퍽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Norfolk Community Archives Network)인 NORCAN은 사진, 비디오, 음성기록 등 일차 자료를 소장한 공동체 아카이브 그룹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웹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NORCAN은 2009년에 끝난 Norfolk County Council의 “Archiving Rural Community History”(ARCH)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이때 참여하였던 공동체 아카이브 그룹들이 새로운 이미지문서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³⁷⁾

(2) 영국 버밍햄의 공동체 아카이브 Connecting Histories³⁸⁾

Connecting Histories는 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아 버밍햄시

36) [<http://www.ccan.co.uk/>] 참조.

37) [<http://www.remembernorfolk.org/>]와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892_path_0p2p12p34p.aspx] 참조.

38)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project.asp>] 참조.

아카이브가 주도하고 버밍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 교육대학, 워윅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회학과, 흑인의 과거와 버밍햄의 미래 그룹(Black Pasts, Birmingham Futures group)과 협력하여 진행한 파트너십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 국가로서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이 담긴 기록 컬렉션 안에서 20세기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역사를 다시 읽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2월~2007년 7월까지 추진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버밍햄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역사에 관한 문서와 사진 제공, △각 공동체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아카이빙 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지원, △공동체의 역사가 알려지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버밍햄시 아카이브나 버밍햄 중앙도서관, 버밍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도 버밍햄시의 역사가 담긴 수많은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지만, 이런 공식기관이 아닌 공동체가 보유한 아카이브도 함께 관리되어야 버밍햄 사람들의 역사가 균형 있게 기록화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활동은 △중요하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목록작업과 온라인/오프라인 접근 제공 △프로젝트 말미에 2명의 피교육자를 아키비스트로 양성 △보존과 접근을 위한 소리 및 사진아카이브의 디지털화 △연구기법, 흑인계 영국인의 역사, 이주와 정착, 사회정의운동, 공연이 저항의 형식과 변화의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의 주제들에 관한 5개의 웹기반 교육 패키지 개발 △공동체들과 자원봉사자 집단이 자신들의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 프로젝트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 △지역적이고 국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아카이브와 유산 부문의 활동 모델 제공 등이었다.

이 아카이브는 특히 기록컬렉션, 교육용 콘텐츠, 전시 콘텐츠 등이 풍부한 맥락기술과 함께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특히 AHRC(2007~2009)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축된 ‘버밍햄 이야기(Birmingham Stories)’에

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연구 가이드’와 연습문제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문화에 담긴 도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카이브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³⁹⁾ 또한 ‘역사는 사람, 장소, 사물을 통해 존재한다’는 구호 아래 버밍햄의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버밍햄 이야기’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도서관 이용자,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얼굴과 장소(Faces and Places)’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얼굴과 장소(Faces and Places)’는 원래 19세기 버밍햄의 대표적 인물과 장소 등을 골라 출판한 책 제목이었으나 이를 계승하여 연구 가이드의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버밍햄의 인물과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해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nnecting Histories의 특징은 공공아카이브가 주관한 사업이며, 다양한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 제공하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록의 수집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기록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중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웨일즈 공동체 아카이브 CAW⁴⁰⁾

Community Archives Wales(이하 CAW)는 웨일즈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 유산 그룹들이 생산,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집단이 디지털화하고 해석하여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들이다. CAW는 웨일즈 전역의 11개 집단이 자신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를 CAW 웹사이트에서 공

39) 이 프로젝트의 부제가 “해석의 공동체에서 이해의 공동체로”인 점도 흥미롭다. 외부자 시선의 해석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관점에서의 기록 이해를 강조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40) [<http://www.ourwales.org.uk>] 참조.

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다른 집단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자신들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기록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진과 이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자들이 오류 지적 등의 코멘트를 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웨일즈 국립도서관의 비영리 기업인 Culturenet Cymru 이 주축이 되고 Glamorgan Record Office, Swansea University Archives, South Wales Miners' Library, West Glamorgan Archive Service가 협력하여 시작하였다. 2007~2008년까지 웨일즈 지역의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⁴¹⁾으로서 Communities@One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카운티 기록관장들(County Archivists)과 기록관리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독도 받았다.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빙을 통한 웨일즈 공동체와 주민 권력의 강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표는 민간이 관리하는 자료 컬렉션을 공동체가 디지털화하고 해석하여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에 1단계가 끝났으며, 웹사이트는 2008년 6월 웨일즈 의회(National Assembly for Wales)에서 개통되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 2009년부터는 다른 공동체 그룹도 계속 자신들의 이미지 기록을 올리고 있다.

3) 분석 종합

(1) 참여 현황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중심의 아카이브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들 사례들은 모두 다수의 아카이브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포털’이라고 볼 수 있다.

41) 웨일즈 의회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가 웨일즈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공동체 사람들의 생활조건과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하는 프로그램.

여러 수집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카이브들의 참여 현황은 <표 3>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주립대학 도서관, 지역아카이브협회, 지역 소재 국립도서관 등이었고, 참여대상기관이나 참여방식은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참여하는 수집기관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목록 및 집합적 기술 등을 제공하고 운영주체는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및 아카이브를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로컬리티 관련 주제에 관한 기록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수집기관 뿐 아니라 이용자 개인 및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포털들에서의 참여현황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AHG는 공동체 아카이브 지원기구라는 점에서 제외하였고, CCAN과 NORCAN은 아카이브 자체로서 해당 지역 공동체의 디지털 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적 영역으로 표출하도록 하기 위한 아카이브 포털들은 대체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포털들이 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토대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nnecting Histories나 CAW는 공공아카이브나 도서관 등의 수집기관이 대학 등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우이고, CAAN이나 NORCAN과 같이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때로는 기술 등의 관리업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영국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들은 대체로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금을 지원받았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사업들은 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지원조직인 CAHG 역시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포

털 사업에서는 특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요 이슈로 설정하고, 활동가로서 아카이스트를 양성하는 등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아카이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수집기관 기반 아카이브에서의 참여 현황

	운영 주체	주요 기능	참여 기관	참여 방식
OAC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	-지역 내에 분산 소장된 기록에 대한 통합 검색 -컬렉션 기술 제공 -디지털 원문(일부) 제공	캘리포니아 소재 150여 개의 도서관, 특수 컬렉션,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	-컬렉션 가이드 (목록 및 기술) 제공 -소장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및 업로드
Memory BC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카이브 협회	-지역 내에 분산 소장된 기록에 대한 통합 검색 -컬렉션 기술 제공 -생산기관 및 개인, 보존소에 대한 전거레코드의 제공 -디지털 원문(일부) 제공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약 200개 보존소	-컬렉션/풍 기술 제공 -검색도구 디지털화 -소장기록 디지털화 및 업로드
Calisphere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	-분산 소장된 기록에 대한 통합 검색 -컬렉션 기술 제공 -디지털 원문(일부) 제공 -MLS로부터 디지털화 지원받음	캘리포니아 소재 110여 개의 도서관, 특수 컬렉션,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	-소장기록 디지털화 및 업로드
People's Collection Wales	웨일즈 국립도서관 등	-웨일즈 지역 수집기관들이 소장한 문화유산의 통합 검색 -위치정보 및 풍경정보와 결합된 서비스 -2D, 3D 유물정보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공유	-웨일즈 소재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개인 및 그룹 참여	-소장기록 디지털화 및 업로드 -이용자그룹을 성하여 참여 -이용자는 기록, 이야기, 경로 등을 올릴 수 있음

〈표 4〉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에서의 참여 현황

	운영 주체	주요 기능	참여 기관	참여 방식
Connecting Histories	버밍햄시 아카이브	-버밍햄 공동체 기록컬렉션의 분류 및 목록 제공 -사진 및 소리기록의 디지털화 서비스 -웹기반 교육콘텐츠 제공 -이용자 참여 콘텐츠 제공	-파트너(버밍햄대학, 워윅대학 등) -지역 내 공동체들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대학 등) -기록의 수집 및 관리에 참여(공동체)
CAW	웨일즈 국립도서관 산하기관	-웨일즈의 낙후된 지역 공동체의 기록을 디지털로 제공	-파트너(Glamorgan 기록관 및 아카이브, Swansea 대학아카이브, 남웨일즈 광부도서관 등) -16개 공동체(확대 중)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대학 등) -디지털화 및 기술(공동체)
CAAN, NORCAN	비영리 민간 단체	해당 지역 내 공동체의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지역 내 공동체들 -공공기록관과 도서관	-공동체 아카이브: 디지털화와 업로드 -공공기록관 및 도서관: 기술적 지원

(2) 참여형 아카이브로서의 평가

〈표 5〉는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포털에서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다.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산소장과 통합검색, 기관 및 개인의 참여, 맥락화로 설정하였고, 맥락화 정도는 생산맥락의 제공 여부, 아카이브 포털에서 재구성한 맥락정보의 제공여부, 재현방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산소장과 통합검색은 조사 대상 기관들이 모두 제공하고 있었으나, 제공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기록집합체에 대한 접근이 중심인 경우(OAC, MemoryBC)와 기록건 중심의 접근이 중심인 경우(Calisphere, People's Collection Wales)로 나눌 수 있었다. 건 중심의 제공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교육목적이나 이용자 요구 등에 따른 집합화 전략을 적용

하고 있었다. 또한 People's Collection Wales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참여를 위한 활동은 찾기 어려웠다. 가장 최근에 개발 중인 People's Collection Wales는 관광안내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적인 이용자 참여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Calisphere나 People's Collection Wales와 같이 건 중심의 기록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아카이브에서는 생산맥락 정보의 제공이 취약한 대신, 포털 자체에서 맥락을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컬렉션 계층의 기록물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OAC와 MemortBC의 경우 컬렉션별 검색도구를 통해 생산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포털에서 별도로 생산하는 맥락정보는 없었다. People's Collection Wales는 기록뿐만 아니라 테마별 이야기, 인물 이야기 등 매우 복합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용자 개인이나 집단이 구성한 기록 컬렉션, 이벤트, 경로, 시기범주, 공간범주 별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맥락화는 기록을 집합적으로 기술하거나, 주제나 목적별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며, 관련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재맥락화는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분산적으로 소장된 기록을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모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표 5〉 수집기관 기반 아카이브에서의 참여 평가

특징 아카이브	분산소장 통합검색	참여		맥락화			
		이용자	기관	생산맥락	재맥락화	재현방식	
						기술계층	검색방법
OAC	매우 양호	미흡	150여 수집 기관	컬렉션별 맥락 정보 (소장기관 작성) 제공	없음	컬렉션	-키워드 -검색도구 연계

Memory BC	양호	미흡	200여 보존소	컬렉션별 맥락 정보 제공	없음	-컬렉션 -전거레코드 (생산기관, 개인, 보존소) 제공	-컬렉션, 생산자, 보존소, 주제, 장소별 브라우징
Calisphere	양호	미흡	110여 수집기관	거의 없음 (건에 대한 간략 목록만 제공)	-테마별 콘텐츠를 통한 맥락 재구성 -주제별 배치	-건	-테마별 기록건 브라우징
People's Collection Wales	양호	콘텐츠 생산에 참여	지역 내 수집기관	간략한 기술 제공	-이용자(개인 및 집단)가 선별 분류 -교육, 전시 콘텐츠, 컬렉션별 기록 그룹화	-건 -이야기	-키워드 -컬렉션, 건, 이용자그룹, 이벤트, 경로, 주제, 시기 및 공간범주별 제한 검색

공동체 아카이브 포털을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사이트들은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록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가려져 있던 공동체의 기록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나 맥락화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포털로서 모델이 될 만한 사례는 Connecting Histories라고 볼 수 있다.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수는 적었지만 공동체 구성원과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적극 제공하고 있었고, 컬렉션별, 테마별 등으로 기록을 집합화하여 공동체 관점에서 기록집합체의 맥락을 설명하고 있으며, 맥락과의 긴밀히 연계 속에서 기록을 제공하는 재현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CAW의 경우, 다양한 공동체의 역사를 분류별, 매체별, 그룹별, 주제별로 나누어 기록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기록건 기반의 검색과 브라우징이 중심이었고 집합적 기술이나 맥락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CAAN, NORCAN의 경우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된 보급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집합적

기술 없이 참여 공동체의 홈페이지나 아카이브로 연계해준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 6〉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참여 평가

특징 아카이브	분산소장 통합검색	참여		맥락화			
		이용자	공동체	생산맥락	재맥락화	재현방식	
						기술계층	검색방법
Connecting Histories	양호	양호 (콘텐츠츠 생산)	8개 아카이브	컬렉션 별 집합적 기술	테마별 맥락 기술	컬렉션	-키워드 -테마별(교육 용, 전시용, 인 물과 장소) 브 라우징
CAW	양호	보통 (코멘트 정도)	16개 아카이브	거의 없음 (건에 대한 간략 목록 만 제공)	-기록건에 대한 주제 분 류 -해설정보 거의 없음	건	-키워드 -공동체, 영역, 주제, 매체별 브라우징
CAAN, NORCAN	양호	미흡	48개 (CCAN), 23개 (NORCAN)	거의 없음 (건에 대한 간략 목록 만 제공)	-자체 맥락 정보 미흡 -공동체 별 사이트로 안 내	건	-키워드 -시기별 제한 검색

4. 맺음말

현재 우리는 지역의 기록을 위한 본격적인 참여형 아카이브 포털을 찾기 어려우며, 공동체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카

이브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추진주체 및 방식

영미의 경우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아카이브 포털들은 주로 공공 아카이브나 도서관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대학이나 비영리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경우가 많았고, 초기에는 대부분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형식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아카이브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로서 미국의 American Memory Project를 들 수 있는데 교사나 전문이용자 층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공모형식의 추진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버밍햄 스토리와 같은 이용자 참여 방식도 콘텐츠 확충전략으로 유의할 만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수집기관 및 공동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집기관 기반의 사례들에서는 대체로 지역 내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컬렉션 및 기록건에 대한 통합검색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이나 전시 등을 위한 목적별 콘텐츠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도 우선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대학의 관련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소장 기록을 알리고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록을 소장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 아직 가시화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의 아카이브를 개발하는 방안은 주민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민활동가나 주민

네트워크 조직과의 소통을 통해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3) 생산맥락의 보존과 재맥락화

단순한 디지털화만으로는 집단기억이 담긴 로컬리티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없으며, 기록의 맥락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경험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집합적 기술과 연구 가이드(Research Guide)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중시하는 ‘맥락화’를 기록 생산 맥락 및 원래 소장처의 수집 맥락으로 본다면, 영미의 아카이브서도 미흡한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체 집단이나 공동체 아카이브별 해설, 이용자 요구에 근거한 재맥락화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집합적 기술과 이용자나 공동체 구성원의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수집은 맥락 있는 기록의 수집과 재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 평가 선별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조사대상기관들은 기록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신뢰성 있는 소장기관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동체를 선별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콘텐츠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기억할 만한 장소나 인물, 사건을 선정하는 경우, 전문가가 주로 교육이나 전시를 위해 선정하는 방식과 이용자가 이용자의 시각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양자가 보완적 전략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5) 이용자 참여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해야 한다는 점

에서 이용자나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영미의 경우도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참여의 정도가 아직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가령, 일반인들이 지역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모으기 위하여 ‘대구의 재발견 : 대구 선택리지’⁴²⁾와 같은 사이트가 활발히 운영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자발적 활동들이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소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록을 올리거나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제공된다면 진행형 기억을 수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주제나 이야기가 있는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맨하튼 기억 프로젝트에서는 911사건에 관한 기억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노무현재단에서는 주요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수집 공모,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소장스토토리와 함께 기증하도록 하는 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³⁾

이제 우리도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여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향토 문화대전도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수집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을 생각할 때 이용자와 지역의 공동

42) [http://cafe.naver.com/walkingdaegu_cafe] 참조.

43) 이현정 등, 「노무현 대통령 사료편찬사업 종합계획(안):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2011. 4. 26. 노무현재단.

체, 수집기관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기록화 전략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다원적 가치를 가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ABSTRACT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Seol, Moon-W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strategies to build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hapter one, the chapter two deals with categorizing participation types of persons and organizations for documenting localities, analysing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each type, and listing up the requirements of participatory archive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e chapter three focuses on the analyses of digital archives especially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such as collecting institutions and community archives in USA, Canada and UK. The cases of participatory archives are divided into two types; i) digital archives based on archival collections of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i) digital archives mainly based on various community archives. Online Archives California(OAC) and Calisphere of University of California, MemoryBC of British Columbia of Canada, and People's Collection Wales of UK as the first type cases, and Connecting Histories of Birmingham, 'Community Archives Wales(CAW),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Norfolk Community Archives Network(NORCAN) as the second type cases are selected for comparative analyses. All these cases can be considered as archival portals since they cover collections from

various organizations. This study then evaluates how these digital archives fulfill the requirements of participatory archives such as : i) integrated search of archives that are to be distributed, ii)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iii) providing broader contextual in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f context as well as contents of archives.

Lastly the final chapter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building participatory archives in Korean local areas based on following aspects : host organizations and implementation strategy, networks of collection institutions and community archives, preserving and reorganizing contextual information, selection and appraisal, and participation of records users and creators.

Key words : participatory archives, documenting locality, community archives, local archives, documentation strategy, collective memory